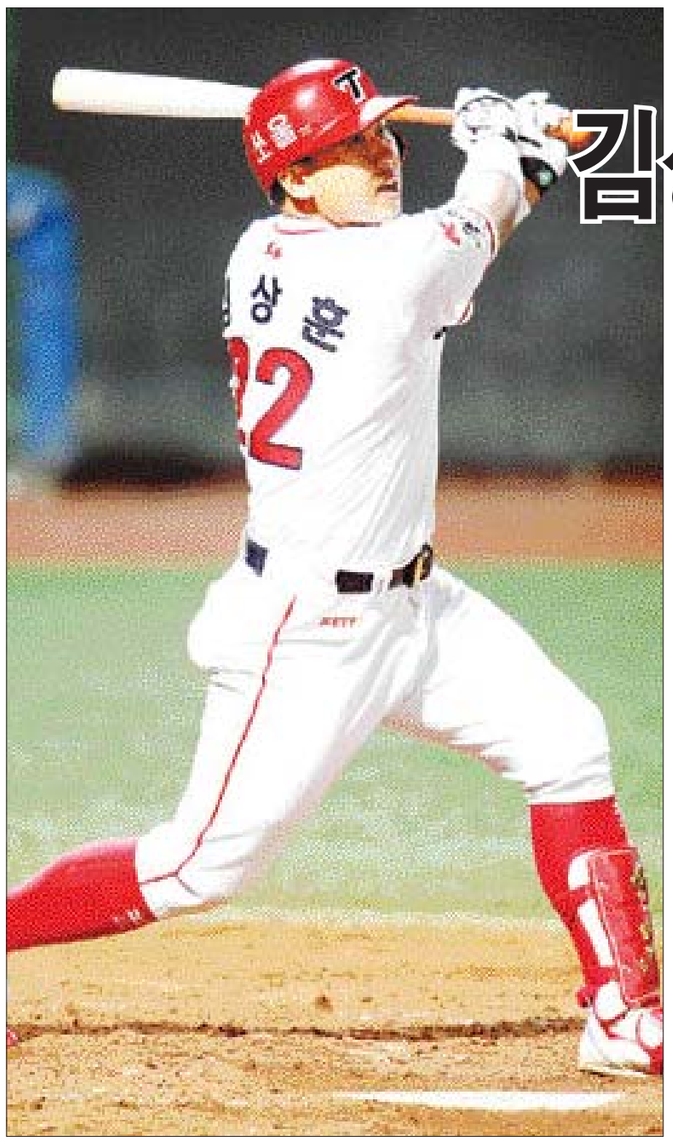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김상훈, KIA 해결사로 뜬다

주장·안방마님 … 살림 도맡아
올 결승타점 4개 팀내 단독 1위

'주장' 김상훈의 영양가 만점의 활약이 눈부시다.

KIA 타이거즈의 안방마님이자 주장의 책무를 맡고 있는 김상훈이 6일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올렸다. 자신의 첫 홈런이었던 이날 솔로포는 팀의 3연승을 결정짓는 결승타이기도 했다.

지난 시즌 김상훈은 0.230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생애 첫 두자릿수 홈런(12개)을 기록하며 65타점을 쓸어담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홈런포와 적시타로 팀 승리의 주역이 되곤 했던 김상훈의 활약은 FA(자유계약) 계약 첫 해인 올해도 변함없다.

올 시즌 김상훈이 결승타점을 기록한 경기는 모두 4차례.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상훈은 주장과 안방마님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 4월 KIA의 졸전이 이어질 때 주장으로서 조마조마 한 달을 보낸 김상훈은 안방마님으로 난조에 빠진 불펜진들을 다독이고, 독려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했다.

김상훈의 활약 뒤에는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

시즌 들어 4번째 결승타를 기록한 6일 김상훈은 경기에 앞서 선수단에 피자 15판을 돌렸다. 4월 월간 MVP에 선정된 턱이기도 했지만 '후배들 힘내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선물이었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있는 모습도 주장으로의 책임감 덕분이다.

타점 비결에 대해 김상훈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타석에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또 배터리로 호흡을 맞추는 투수들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경기하게 해주고 싶어서 타석에서 더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족의 사랑도 활약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팀에서는 주장으로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김상훈이지만 집에서는 늦둥이 막내아들이다. 가정적이기로 소문난 김상훈은 어버이날 서울 원정에 가야하는 터라 6일 미리 부모님과 점심을 했다.

지난해 김상훈은 아버지 덕분에 '장어주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9시즌 시작 후 6경기 동안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김상훈은 경기 전 아들의 부진을 안쓰러워 하던 아버지가 사주신 장어를 먹고 시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어주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상훈은 이날도 아버지와 점심으로 장어를 먹고 손맛을 봤다.

김상훈은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첫 홈런을 기록한 것 같다"며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심사위원〉
임옥희(군산대 교수)
황미경(순천대 교수)
구재향(호남신학대 교수)
조성경(남부대 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 교수)

피아노 초등 5·6학년

2 정수민(수완5)
3 한광선(담양남5)
8 이수진(여수문수5)
9 최예정(담양남6)
10 김도연(광주삼육5)
13 김예지(화개6)
14 장서아(봉선5)
16 이승연(대자6)
17 김하민(정암6)
18 김차영(곡성중앙5)
19 천기정(정암5)
24 이신화(광주학운5)
25 이하영(선창6)
33 이은채(광주서5)
35 조주희(신창5)
36 최지우(광주효덕5)
38 오수빈(나주5)
39 윤성흠(만호6)
41 박현지(광양용강6)
47 박지형(만호5)
48 배도희(용주6)
54 윤세린(도원5)
55 김승희(여도5)
56 신아연(여수중앙6)
57 최휘연(광주교대광주부설6)
58 장혜영(용주5)
60 이오주(목포석현5)
63 장다은(만호6)
66 김 선(군산지곡6)
68 하이삭(산월5)
72 김민지(풍암5)
74 김정우(태봉5)
75 박민지(문화5)
79 이다연(녹동5)
81 박찬무(문흥6)
83 이다빈(군산지곡6)
84 이도윤(녹동6)
85 류정인(태봉6)
90 장 원(광주대성6)
91 문지영(풍영5)
100 한이지(여수좌수영6)
102 김요섭(화순만연6)
103 김다운(목포청호5)
104 조명섭(영광5)
106 이유미(선창5)
109 김성은(월봉6)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5월 14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男 100m 한국기록 올핸 깨질까

종별육상선수권 10일 개막

한국 육상 대표선수와 코치 150명은 지난 1월 5일 사상 첫 합동훈련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에 태극기를 올릴 때까지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거리 대표선수들은 31년 묵은 100m 한국기록(10초34)을 올해 반드시 깨트리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0일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 국가대표 3인방 김국영(안양시청), 여호수아(인천시청), 전덕형(경찰청)은 나란히 10초17, 10초18, 10초19를 전광판에 찍었다. 하지만 뒷바람(초속 +4.9m)이 세계 불어 기록 공인을 받지 못하고 참고기록으로 남았다.

장재근 육상연맹 트랙 기술위원장은 "5월 종별대회 때 기록 단축을 노려보겠다"고 장담했다. 드디어 벼르던 때가 왔다.

올해 육상 시즌을 본격적으로 열어젖히는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가 오는 10~14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12일 오후 3시40분 남자 일반부 100m 결승이 단연 하이라이트로 손꼽힌다. 김국영은 10초47, 여호수아와 전덕형은 10초48이 최고기록이다. 김국영은 '고교괴물'로 작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지난 2년간 에이스 노릇을 했다. 전덕형은 한때 슬럼프에 빠졌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스프린터이다.

/연합뉴스

새 엠블렘·슬로건 발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지난 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완전 통합한 체육회가 통합 이념과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엠블렘과 슬로건을 발표했다.

체육회의 새 엠블렘은 과거 오륜마크 위의 태극 문양을 원형에서 회오리 형태로 변형시켜 스포츠의 역동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또 슬로건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To the World Be the Best(세계를 향해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김명홍·이귀옥씨 차남 두용군 나원주(화인코리아 대표이사)·최선씨 차녀 인혜양=8일(토) 오전 11시 광주 조선컨벤션 웨딩 1층(영빈관)

▲윤학원·박평순씨 차남 종훈군 김형욱(서광주 세무서장)·권혜경씨 장녀 예선양=9일(일) 서울 월드컵컨벤션 웨딩홀 2층(다이아몬드홀)

▲이석구·박애영씨 장남 원우군 한기민(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김순와씨 장녀 은미양=16일(일) 오후 1시 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피로연 8일(토) 오후 5시 메리어트 웨딩홀.

▲고광연(월드냉동 사장)·유인임씨 장남 영칠군 오승희(전 광주시 사회복지국장)·김문숙씨 차녀 우린양=8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박순오(바다스파랜드·바다주유소 대표)·김순희씨 차남 선준군 이광진(순천공업고등학교)·신주연씨 장녀 유나양=8일(토) 오후 1시20분 순천 미림웨딩하우스(아도니스홀)